

재회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었다.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나일 강이 해마다 범람하면서 상류의 비옥한 토지가 하류로 퍼내려왔다. 그것이 나일 강 삼각주 지역이다. 늘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당연히 곡식이 풍성했다. 그런 애굽에 칠 년의 기근이 온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애굽에 기근이 찾아왔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대로 칠 년 동안 풍년이 있더니 팔 년째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가나안 지역도 기근을 피할 수 없었다. 평소에도 한 세대에 한 번은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먹었는데 지금은 애굽 사람 먹을 양식도 없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비축한 양식으로 애굽 국민 전체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주변 나라 백성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들었다. 그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 창세기 42:7**

형들 중 누구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무려 이십 년 만의 재회였다. 게다가 요셉이 아니라 사브낫바네아, 애굽의 총리를 감히 얼굴을 들어 볼 수도 없었다. 자신 앞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는 형들을 본 순간, 요셉은 열일 곱 살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된다.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형제들은 십삼 년 전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며 이런 말을 했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 창세기 37:20**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과연 그들의 말대로 보게 되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형들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목격하게 되었다. 요셉은 형제들을 모른체 하며 정탐꾼으로 몰아세운다. 양식은 커녕 목숨을 잃게 생긴 형들은 자신들의 출신지와 가족사항까지 늘어 놓는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 창세기 42:13**

같은 어머니가 낳은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없어졌다? 구덩이에 던진 것이 아니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이 아니고? 없어졌다? 그냥? 요셉은 형들을 믿을 수가 없다. 베냐민의 생사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사흘을 감옥에 가둔 후에 요셉이 제안한다. 너희 중 한 명이 이곳에 남고 나머지는 가나안으로 가서 막내를 데려와라.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브낫바네아의 말을 누가 거절하겠는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 창세기 42:21**

형제들은 이 모든 일이 요셉에게 한 짓의 보응이라고 여겼다. 르우벤도 나서서 내가 그러지 말자 하지 않았냐며 한 마디 거든다. 총리가 보고 있지만 통역이 있었던 탓에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거라 생각하고 과거를 서슴없이 이야기한다. 요셉의 눈에 지난 잘못을 후회하는 형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베냐민이 살아 있는 것을 보아야 했다.

요셉은 시므온을 감옥에 남겨두었다. 한 사람을 남게 한다면 장남 르우벤이어야 하겠지만 자신을 살리려 했던 큰 형님에 대한 배려였다. 양식을 사기 위해 가져온 돈뭉치도 각자의 자루에 도로 집어 넣었다.

그걸 믿으라고?

가나안으로 돌아간 아들들은 야곱에게 사실을 말한다.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시므온이 거기 잡혀 있습니다. 막내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풀어준답니다.

이걸 믿으라고? 야곱은 아들들을 믿지 못한다. 이 놈들이 돈을 주고 양식을 산 것이 아니라 형제 시므온을 팔아서 양식을 사왔고 다음에는 막내 베냐민을 팔려는 것이 아닌가?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 창세기 42:37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한다. 믿어주세요, 베냐민을 도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믿지 못한다. 열 명의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야곱은 믿지 못한다.

기근이 가져온 것들

애굽의 대기근은 모두에게 의미가 있었다. 요셉은 기근을 예고하고 대비책을 제시함으로 총리가 되었고 어릴 때 꿈의 확인하게 되었다.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은 죄를 감출 수 없음을, 죄는 반드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아온 야곱은 자식들도 믿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기근이 준 것은 굶주림만이 아니었다.